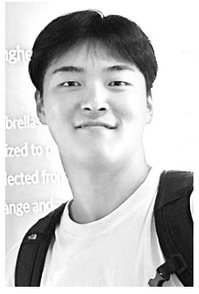
"재난 영화 보며 품은 꿈…소방 전문가 향해 성장 중"

국가기술자격증 4관왕…호남대 소방행정학과 박태준



재난 영화 '타워'를 보며시민을 구하는 소방관의 모습에 매료됐던 소년이 국가기술자격증 4개를 동시에 거머쥔 준비된 인재로 성장했다.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학년 박태준(26·사진)씨가 지난해 1년간 합격률 15%에 불과한 소방설비기사(전기)와 소방설비기사(기계),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총 4개의 기사급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다.

전체 평균 학점 4.15점을 유지한 박 씨는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기 위해 4학년 2학기에는 수강 과목을 최소화 해 등교 시간을 주 1회로 집중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나머지 6일 동안 박 씨는 하루 최소 8시간 이상의 순수 공부 시간을 확보했다. 카페, 도서관, 집 등 공부 환경에 변화를 주며 단조로움을 막았다.

혹독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대표 농구선수로 활동하며 다진 기초 체력이 있었다. 운동을 통해 몸소 익힌 끈기와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승부욕은 수험 생활의 밑천이 됐다.

"SNS 속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때,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정체기가 찾아올 때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그럴 때마다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여자친구와 가족들, 교수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죠."

박씨의 졸업 후 목표는 삼성전자나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 소방대원으로 입사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다. 설비 점검와 안전훈련을 통해 화재 초기 대응을 맡는 소방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실무 경력을 쌓은 뒤에는 소방 분야 최고 권위로 꼽히는 소방기술사 자격증에 도전할 계획이다.

그는 "1~2년만 죽어라 노력하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서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호남 1세대 건설인'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 별세

호남 지역 1세대 건설 기업인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이 13일 오후 10시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고인은 1935년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에서 태어나 1958년 종합건설업체 남양건설을 설립했다. 1972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남양휴튼' 브랜드로 대표되는 아파트 건설과 항만·도로·터널·택지·해상 교량 공사 등을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시공하는 등 대규모 관급 공사도 수행했다.

마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대한건설협회장,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 9월부터는 광주매일신문 회장으로도 활동해 왔다.

고인은 남양문화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하는 등 국가 경제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백장(1985년), 국무총리 표창(1989년), 금탑산업훈장(1994년), 대통령 표창(2002년) 등을 수상했다. 고인의 장례는 남양건설 회사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 국민장례문화원 201호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마찬호 남양건설 부회장 등 1남 2녀가 있다. 발인은 16일 오전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

문체부, 제8기 지역신문발전위원 9명 위촉

위원장 조상진·부위원장 최창렬 선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제8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8기 위원은 정후식 전 광주일보 논설주간, 김진이 전 고양신문 편집국장, 김창우 전 강원일보 미래전략기획실장, 안상호 전 매일신문 이사,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우희창 시민미디어 마당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조상진 전 전북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다.

신임 위원들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조상진 위원장과 최창렬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김도열 31사단 사단장 취임

김도열 소장〈사진〉이 육군 제31보병사단 신임 사단장으로 취임했다.

김 소장은 14일 광주시 북구 육군 제31보병사단 사령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2대 사단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사단장은 구례군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육사 53기로 임관해 레바논평화유지단장, 제72보병사단 참모장, 제2작전사령부 동원참모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호남의 방패이자 따뜻한 동반자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충장부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충장부대"를 만들고, 동시에 "국민은 안심하고, 장병들은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박영재 광주시 학예연구사, 문체부 장관 표창

문화유산자원과 박영재〈사진〉학예연구사가 2025년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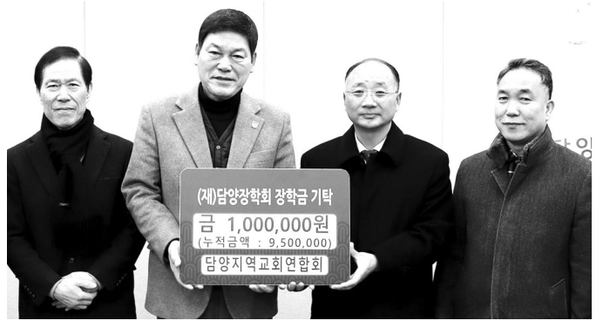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2025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를 열고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박 연구사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광주 유치 및 성공 개최에 기여했다. 또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을 잇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화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았다.

인공지능(AI)과 문화기술을 활용한 '아시아공동체전승문화 플랫폼'을 구축해 문화유산 보존 체계를 확립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담양교회연합회, 장학회에 장학금 100만원



담양지역교회연합회(회장 백양교회 유문열 목사)는 14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재)담양장학회(이사장 정철원)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담양군 제공〉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첫 번째 남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꾸러기 탐구생활
11	10 사랑의 가족(재)	10 개그 콘서트 스페셜(재)	15 건강의 재구성 썰록(재)	00 말하는 몸
12	00 KBS 뉴스 12	25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판사 이한영(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랄라 행복한 곰돌이
1	00 다큐 온(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친밀한 리플리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고향이 보인다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백투더뮤직 시즌 2(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캡슐세이버(재)	55 기분 좋은 날(재)	00 투데이(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탑클래스(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0 건강 하우스 깡있는 아침(재)	00 SBS 오뉴스 30 캐리와 친구들(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00 네모세모(재) 50 KBC뉴스와이드(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친밀한 리플리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은애하는 도적님아(재)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살림하는 남자들(재)	50 MBC 뉴스 25	50 닥터 365
12	00 KBS 중계석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25 아이 러브 스포츠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판사 이한영(재)	00 싱싱!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나만 믿고 따라와, 태국2 -방콕 출발 당일 치기〉
07:00 꼬마마법사 주니토니
0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메탈카드봇W 강철의 포효
08:00 딩동댕 딩동댕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08:50 슈퍼윙스 슈퍼콤보
09:20 탑골스타 개청이(재)
09:4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건축탐구 - 집(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재)
16:3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7:00 페파 피그
17:10 나의 비밀친구 해치(재)
17:25 메탈카드봇W 강철의 포효(재)
17:40 타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재)
17:50 탑골스타 개청이
18:10 EBS 뉴스
18:30 PD로그(재)
19:20 고향민국
19:5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재)
20:40 세계테마기행 〈화려한 사막 도시, 두바이 -두바이 사람들이 사는 법〉
21:35 한국기행 〈맵고 짜고 달고 4부 흐미 짠 거~ 남도 김치의 진 맛!〉
21:55 손주 보러 세계일주 - 할매가 간다!
22:45 EBS 다큐프라임(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5일(음 11월 27일 己丑)

☎ 010-9790-8237

子 48년생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어느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갖게 되리라. 60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호기가 주어질 수 있다. 72년생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면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84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다. 96년생 확실히 대처한다면 막을 수 있다. 08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10, 89

丑 37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49년생 오랫동안 부담을 주는 골칫거리가 생겨날 것이니라. 61년생 예외로 치부해 왔던 바가 중심에 서게 된다. 73년생 애초의 성향에서 특별한 형태로 변모될 것임에 틀림없다. 85년생 거친 풍랑이 밀려오고 있으니 안전하게 대피하자. 97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행운의 숫자 : 49, 68

寅 38년생 배려는 곧 경제적 이익이 되어 돌아오리라. 50년생 거시적인 관점으로 조망해야 대의를 도모할 수 있다. 62년생 혼란이 따르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74년생 상호 간에 이해하면 모든 것이 풀리리라. 86년생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만 타인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는다. 98년생 화려한 영광을 누리게 될 수다. 행운의 숫자 : 44, 57

卯 39년생 백 마디의 말 보다 단 한번의 실행이 설득력을 얻는다. 51년생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판세이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63년생 쉽게 기회가 오지는 않을 것이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다. 75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들여라. 87년생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선다. 99년생 디딤돌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85

辰 40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52년생 기쁜 일을 맞이함으로 인해 신명 날 것이다. 64년생 기본 진로는 안전하지만 비보호 좌회전도 있다는 사실을 알라. 76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면 재물이 들어올 수이다. 88년생 근거가 없다면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00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도다. 행운의 숫자 : 09, 63

巳 41년생 외형까지 손질 한다면 훨씬 더 빛나리라. 53년생 불만족스럽다면 원인 요소부터 면밀히 살펴봐야겠다. 65년생 당면 과제를 소홀히 한다면 힘들어질 것이다. 77년생 불가항력적인 고역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겠다. 89년생 기다렸다는 듯이 때맞추어 나타나리라. 01년생 징후가 좋으니 분명히 길사가 일어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91

午 42년생 현실적이고 가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방하다. 54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66년생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사실을 알라. 78년생 방심하다가는 휘둘릴 수도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둬라. 90년생 기가 막힌 인연을 가진 이와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02년생 내부적인 면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36, 88

未 43년생 판국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55년생 바람직한 방향인지 진로를 확인해 보자. 67년생 알면서도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79년생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91년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미련 없이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03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해 줘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3, 76

申 44년생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취할 수도 없다. 56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니 전후좌우를 잘 살펴 가자. 68년생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느니라. 80년생 태평스러운 항해가 될 것이다. 92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세계이니라. 04년생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알차느냐의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16, 61

酉 45년생 잡다함을 차치해야만 길조를 상승시킨다. 57년생 제3의 요소가 생기면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81년생 목표가 분명하다면 재물을 부른다. 93년생 안도하기에는 이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05년생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야만 목적하는 바를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5, 95

戌 46년생 가장 용이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일시적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70년생 오랫동안 공들여 왔던 곳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82년생 유사한 상황만 반복해서 계속될 뿐이지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94년생 세차게 쏟아질 것이니 우선 피하고 봐야 한다. 06년생 외출을 삼간다면 면액하겠다. 행운의 숫자 : 39, 59

亥 47년생 방비책을 튼튼히 해두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59년생 현명한 판단이 잠재적 생산성을 강화시킨다. 71년생 결정은 속히 하되 실행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83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를 낳으면서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95년생 고르게 처리해야 용이함을 꾀한다. 07년생 잘 헤아려 봐야 할 일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 00, 82